

10년만에 기준금리 3%대 진입

시름 깊어지는 지역 경제

중기 "이자 수천만원, 폐업 고민"
'영끌' 서민들 "집 팔아야 하나"

소상공인 "빛으로도 못 버티"

10년 만에 기준금리가 연 3%대에 진입하면서 지역 중소기업은 물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직장인 등 서민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게 됐다.

원재료 가격이 치솟아 마진율이 감소하고, 내수와 수출 등 매출까지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역 중소기업들은 "더 이상 감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대출을 받은 서민들도 치솟는 금리에 가계경제에 위협까지 느끼는 수준인데, 금리 인상과 그로 인한 부동산 등 자산가치 하락 등이 맞물려 소비가 위축되자 지역 유통업체 역시 우려를 금치 못하는 실정이다.

12일 지역 경제단체와 산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의 잇단 '빅 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 단행으로 인해 금리가 치솟게 되면서 일부 지역 중소기업들은 영업이익을 다 쏟아부어도 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한계상황이 현실로 닥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광주시 광산구의 한 제조업체 대표 A씨는 "앞으로 사업을 영위해나가는 데 심각한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그의 회사 부채는 현재 100억원 상당으로 기존 2.8% 수준이던 대출이자 금리가 최근에는 4.1%까지 올랐다.

기존에는 매달 약 2300만원의 이자를 갚았는데, 최근에는 3400만원 상당까지 올랐다. 계속된 기준금리 인상으로 금리가 5%만 되더라도 매달 이자만 약 4100만원씩 갚아 나가야 한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무엇보다 그의 회사 매출은 코로나19 이전 월 38억원 상당에서 최근에는 16억원 상당으로 60% 가까이 줄었다. 매출만 감소한 것이 아니라 환율이 오르면서 수입하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인건비와 시설투자 비용이 증가하면서 실제 영업이익은 제로(0)에 가까워졌다고 한다.

A씨는 "수익은 없는 상황에서 매달 대출 이자만 수천만 원씩 꼬박꼬박 갚아야 한다"며 "이런 상황이 내년까지 이어지면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금리인상 여파로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치명타를 입은 건설업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건설회사에 스틸과 철강제품 등을 납품하는 광주 한 중소기업 대표 B씨는 "얼마 전 같은 업계 대표 3명과 만났는데 모두 지난 9월부터 적자로 돌아섰다고 푸념했다"고 한다.

그는 "공장과 생산설비를 위해 받은 사업자금 대출 규모만 150억원 정도에 이른다"며 "적자 상황 속

에서 두 배 상당 급증한 대출이자 부담에 밤잠도 설친다"고 말했다.

실제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 제조업체 307개사를 대상으로 금리 인상 영향과 대응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약 62%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자 부담에 따른 자금 사정 악화(68%)와 설비투자 지연 및 축소(29%), 소비위축에 따른 영업실적 부진(21%)을 어려움으로 꼽았다.

영업이익과 생산·운영비용을 고려할 때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금리의 한계 수준을 묻자 3.00%라고 답한 기업이 약 42%로 가장 많았다.

막대한 설비 투자 비용이 들어가는 기업이나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들은 금리 인상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져 설비 투자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불안도 팽배한 실정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도 금리 부담을 겪기만 한 가지다. 특히 광주·전남은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진흥기금 연체액이 해마다 60억원씩 쌓이면서 연말에는 3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 실정이다.

여기에 빛으로 버티던 광주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전국 평균 3.6배에 달할 정도로 치솟는 등 지역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빚 부담이 큰 상황에서 계속된

기준금리 인상으로 지역경제계가 긴장하고 있다.

이밖에 금리가 오르면 소비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소매·유통업체도 심각한 매출 하락으로 이어지는 않을 지 불안한 시선이 가득하다.

최근 광주상공회의소가 지역 내 479개 소매·유통업체를 대상으로 4분기 경기전망지수(RBSI)를 조사한 결과 74로 기준치(100)를 크게 밑돌았다.

2분기 116에 이어 3분기 114와 비교해도 무려 40포인트 이상 떨어진 것으로, 코로나 재확산에 유통업 전반의 경기가 최악이던 2020년 2~4분기 수준(54~78)으로 얼어붙었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중소기업은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이어 원자재값 급등과 대출금리인상, 글로벌 경기침체 등 대내외 경영 여건 악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금융위의 2회 연속 0.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현재와 같은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이 쓰러지지 않도록 정책자금 지원 확대 등 적극적인 금융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금융권도 기준금리 인상 폭 이상의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은행권, 예·적금 금리 인상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2일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3.00%로 0.50%포인트 인상하는 '빅 스텝'을 단행하자 시중은행들도 예·적금 등 수신금리에 이를 조속히 반영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을 감안해 오는 13일부터 19개 정기예금과 27개 적금 상품의 금리를 최대 1.00%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영업점 창구 뿐만 아니라 인터넷 및 스마트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상품에 가입해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도 한은 기준금리 인상을 조속히 수신상품 금리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민은행은 한은 기준금리 인상 폭은 물론 금융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음 주 중 수신상품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매달 1회 이상 시장금리 변동을 점검해 기본금리에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역시 빠르면 14일, 늦어도 다음 주 중에는 수신금리 인상 대열에 동참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생활요금 자동납부 행사

광주은행 KJ카드 고객 대상

광주은행은 KJ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2022년 광주은행 KJ카드 생활요금 자동납부 행사'를 한다고 12일 밝혔다.

생활요금 자동납부 행사는 상·하반기 나눠 진행된다.

광주은행 KJ카드로 생활요금 자동납부를 신청한 개인 회원(신용·체크카드)이 대상이다.

자동납부 고객을 최대 2만4000원 상당을 현금(적립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행사 기간 아파트 관리비 자동납부를 신규 신청하면 회당 3000원씩 최대 6000원 상당을 돌려받는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학부부 부담금도 회당 3000원씩 최대 6000원까지 캐시백 혜택이 주어진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은행 홈페이지(kjbank.com)와 스마트뱅킹, 모바일웹 또는 가까운 영업점과 고객센터(1577-3650)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효성첨단소재, 초고강도 탄소섬유 개발 우주·항공 소재 국산화 '한 걸음 더'



효성첨단소재가 초고강도 탄소섬유(사진)를 개발하며 우주·항공 소재의 국산화에 한걸음 더 가까웠다.

효성첨단소재는 12일 인장강도 6.4GPa, 탄성률 295GPa 이상 수준의 'H3065(T-1000급)' 초고강도 탄소섬유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초고강도 탄소섬유 개발은 2017년 8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가 투자해 추진하는 국방과학기술 연구소 민군협력진흥원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으로 시작해 5년만에 거둔 성과다.

효성첨단소재가 그동안 주력으로 생산해온 'H2550(인장강도 5.5GPa, 탄성률 250GPa, T-700급)' 탄소섬유는 강도가 철보다 10배 이상 높아 주로 ▲수소연료탱크 ▲전선심재 ▲태양광 단열재 ▲스포츠 등 용도로 사용됐다.

이와 비교해 이번에 개발된 'H3065' 탄소섬유는 강도가 철보다 14배 이상 높은 초고강도 특수 탄소섬유이며, 동급의 T-1000 탄소섬유는 보잉 등의 최신 항공기 동체 및 부품, 인공위성을 비롯한 우주발사체 등 우주항공 및 방위 산업에 다방면으로 활용되고 있다. T-1000급 탄소섬유는 원



효성첨단소재가 독자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최초로 '고성능 탄소섬유 탄섬'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는 전주공장 전경.

료 중합과 방사, 소성 등 전체적인 공정 난이도가 높고 차별화된 기술이 필요해 일본, 미국에서만 생산이 가능했다.

특히 초고강도 탄소섬유는 우주 산업 분야에서 우주발사체와 위성체 등의 개발에 필수적인 소재로 꼽히고 있다.

발사체의 알루미늄 등 기존 소재와 비교해 훨씬 가벼우면서도 높은 탄성률과 강도를 지녀 발사체의 무게를 최대한 덜면서 높은 하중을 견디고 추진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탄소섬유를 적용한 발사체는 무게를 줄여 연료를 적게 탑재하는 만큼 탑재체의 무게를 늘릴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발사된 누리호에 탑재된 위성체를 보호하는 페이로드 페이

링에 탄소복합재가 사용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밖에 방산 분야에서는 발사체에 탄소섬유 적용 시 경량화의 극대화가 가능해지며, 이를 통해 속도 및 사거리가 향상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은 "이번 개발로 우리나라도 일본, 미국에 이어 초고강도 탄소섬유 생산이 가능한 탄소 소재 선진국에 오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초고성능 탄소섬유 소재의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고, 국내 탄소섬유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금호타이어 통상임금 소송 회사 경영사정 감안을"

광주상의, 법원 선처 호소

광주상공회의소는 11일 금호타이어의 통상임금 상여 소송에 대해 회사의 경영사정을 감안한 법원의 선처를 바라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광주상의는 이날 호소문을 통해 "지난 60여년간 광주·전남지역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도맡아왔던 금호타이어 워크아웃 종료 이후 현재까지 누적 당기 순손실이 5000억원을 넘어서는 등 재무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면서 "다음 달 16일 예정된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에 따라 2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추가비용을 지출하게 돼 2009년의 워크아웃 사태가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광주상의는 "금호타이어는 협력업체 등

간접 고용인원까지 포함하면 1만명이 넘게 고용하고 있으며, 광주와 곡성공장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규모가 연간 1조5000억원에 육박하는 등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강조하면서 "통상임금 재산정 등에 따른 우려가 현실화된다면 5만6000여명에 달하는 직·간접 고용인원과 가족들은 물론 지역 경제에도 상당한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신의칙의 위반 여부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워크아웃 이후 최근까지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호타이어의 현 상황에 대한 고려와 함께 이들이 국가 및 지역경제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법원의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서광주세무서,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정례회의

서광주세무서(서장 나중선)은 11일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소상공인 지원단체와 세무사·회계사 등 전문가들을 초청해 실무에서 겪는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밖에 감염병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체 및 식품제조업의 재료비 부담 경감 등을 위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확대와 개별 포장된 김치·된장 등 단산 가공식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등 세법 개정 사항도 전달했다. 또 '권리보호요청 제도'와 '납세자권익24' 등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구제 요청을 할 수 있는 납세자 권익보호제도에 대해서도 알렸다.

특히 소상공인지원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신용카드 국제 납부에 따른 수수료 면제 요청에 대해 정례회의 정식 안건으로 상정·의결했고, 광주지방국세청에 개선 건의사항으로 제출키로 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202.47(+10.40)
▲ 코스닥	671.67(+2.17)
▼ 금리(국고채 3년)	4.107(-0.235)
▼ 환율(USD)	1424.90(-10.30)